

호남권 외식업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문객 반토막

농식품부 외식업체실태조사... 지난해 평균 방문객 28.7명 연 평균 매출 1억2122만원 23.8%↓ ... 전국 6개 권역 쪼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식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호남권 식당 방문 고객이 1년 새 반토막 났다. 지난해 외식업체 연 평균 매출은 4000만원 가까이 떨어지며 6개 권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담겼다. 지난해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른 호남권 외식업체 연 평균 매출은 1억2122만원으로, 1년 전(1억5906만원)보다 23.8%(-3784만원) 감소했다. 호남권 매출은 전국 6개 권역 쪼개질 뿐더러, 가장 크

게 감소했다. 연 평균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권으로,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1억203만원(54.7%) 오른 2억8849만원을 나타냈다. 호남권보다 무려 1억6700만원 넘게 많았다. 서울권에 이어 수도권(2억2464만원), 충청권(1억9710만원), 경남권(1억5650만원), 경북권(1억5204만원), 호남권 순이었다. 호남권 외식업체 연 매출은 1억6139만원(2018년)→1억5906만원(2019년)→1억2122만원(2020년) 등 2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2019년에는 경북권(1억2789만원)이 권역별 최하위를

는데, 이듬해 호남권에 쪼개 자리를 물려받았다. 호남권은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재유행을 겪으면서 음식점을 찾는 발길이 급격히 감소했다. 한 해 동안 5000만원 미만 버는 외식업체 비중은 지난해 2019년 5.3%에서 1년 사이 18.2%로 3.4배 뛰었다. ▲5000만~1억원 미만 28.7%→34.4% ▲1억~5억원 미만 64.1%→46.0% ▲5억원 이상 1.9%→1.3%로 '약대 매출' 음식점은 줄고 영세 식당 비중이 크게 늘었다. 외식업체의 코로나19 위기는 방문 고객 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호남권 외식업체 평균 방문 고객 수는 28.7명으로, 전년 57.8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호남권 방문 고객 수 역시 6개 권역 최하위였

데, 서울이 69.2명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52.5명), 충청권(42.2명), 경남권(38.8명), 경북권(36.5명), 호남권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방문 고객이 100명 이상인 호남권 외식업체 비중은 지난해 2019년 15.8%에 달했지만 이듬해에는 2.2%로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루 방문객 20명 미만인 업체 비중은 22.4%에서 39.9%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외식업체의 배달 수는 2019년 6.1인분에서 6.3인분으로 소폭 늘면서 외식업체 타격을 매우지 못했다. 호남권 외식업체 경영인들은 3년 연속 '식재료비 상승'을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가장 먼저 꼽았다. 지난해 이들에게 경영상 애로사항을 물으니 식재료비 상승이 85.8%(중복응답)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경쟁심화(76.2%), 임차료 상승

(73.0%), 인건비 상승(69.8%), 제도적 규제(65.4%), 서빙 구인난(51.9%), 조리 구인난(46.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 외식업체 수는 광주 1만9219개, 전남 2만8802개 등 총 4만8021개로, 전국(12만3709개)에 비해 각각 15.5%, 23.3%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전남 외식업체를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2인 업체가 32.6%(1만5646개)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1인(28.7%), 3~4인(27.2%), 5~9인(9.8%), 10~29인(1.6%), 50인 이상(0.0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달 동안 호남권 266곳을 포함한 전국 300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월14일은 백설기 데이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11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1층에서 쌀 소비를 늘리자는 제10회 백설기 데이(3월 14일)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 본부장과 이재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서옥원 상호금융리스크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농·축협 임원 160명 대상 상호금융 교육

코로나 신속 대응 강조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1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남·광주 관내 농·축협 상임이사·전무 16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 방향 교육을 했다. 교육은 주요 성과분석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디지털금융을 선도하는 농협 상호금융의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지역 중심 사업지원·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동반자 역할 강화 등 중점 추진 사항과 사업별 추진 방향 등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상호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이재식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상호금융의 현황과 미래'라는 특강을 통해 코로나19로 파생된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할 전략을 제시했다. 또 지난 1월27일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농협 상

호금융이 마이너스 사업허가를 받은 패자를 자축하며 농업인, 고객,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초일류 상호금융 구현을 다짐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비대면 문화, 환경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혁신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전남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힐스테이트 광천' 모델하우스 오늘 온라인 공개

359세대 규모 주상복합단지 조성

현대엔지니어링은 12일 '힐스테이트 광천' (투시도) 견본주택을 온라인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광천'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17-1번지)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이다. 지하 3층, 지상 28~32층, 3개동, 총 35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전용면적 70~84㎡ 305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29㎡ 54실이 있다. 아파트 유행별 가구수는 ▲70㎡A 87세대 ▲70㎡B 87세대 ▲84㎡A 79세대 ▲84㎡B 52세대다. 오피스텔 실수는 ▲29㎡OA 3실 ▲29㎡OB 9실 ▲29㎡OC 15실 ▲29㎡OD 3실 ▲29㎡OE 9실 ▲29㎡OF 3실 ▲29㎡OG 6실 ▲29㎡OH 6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오는 22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3일 1순위(해당 지역), 24일 1순위(기타 지역) 청약접수, 25일 2순위 청약접수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1일 진행

되며, 정당계약은 4월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힐스테이트 광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는 오는 17일 진행되며, 18일 당첨자를 발표할 뒤, 19일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오피스텔의 경우 100세대 미만으로, 구성돼 매매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판상형 및 탑상형 혼합 구조를 도입해 각 방의 독립성과 거실의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환관 에어샤워 시스템과 에어브러쉬 등 다양한 스마트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또 특화 서비스인 Hi-oT(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세대 내 가전기기를 통제할 수 있다. 12종이 식재된 '포켓가든'과 '플레이가든' 등 정원형 공개 녹지도 꾸며진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현실(VR) 영상과 입지, 단지 배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서구 농성동 156-19에 마련되며, 당첨자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362-9996.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각·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